



아이와 대화하기가 힘드네요

송종용/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자 너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이 줄어들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말을 붙여 본다.

“너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이는 “아니, 아무 일도 없어”라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걱정되고 답답하지만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된다. 특히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지 않던 부모가 갑자기 아이에게 말을 걸면 기대한 만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마련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예에서는

“너 요즘 기운이 없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라는 정도의 말을 던지고 기다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말이 없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대화를 나누지 않던 부모라면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말을 걸면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가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부모가 기대한대로 안된다고 화를 낼 부모라면 차라리 말

을 걸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평소에 대화를 잘 안하던 부모라면, 아니면 아이가 말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먼저 하루에 30분씩만 아이와 놀도록 하자. 아이하고 놀 때 억지로 말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그냥 같이 재미있게 즐기도록 하자. 매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꼴로 그렇게 놀아보자. 그리고 이런 놀이를 시작할 때 아이에게

“오늘부터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너와 노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엄마가 바빠서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한 번에 30분 정도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너하고만 놀거야.”라고 알려주고, 이 약속을 잘 지킨다.

그렇게 몇 주를 하다 보면, 아이는 부모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들게 된다. 그렇게 같이 놀다보면 서로가 공유하는 경험이 생기고, 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이가 하고 싶었던 것, 부모가 궁금해하던 것도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렇게 아이와 자연스런 대화를 나눌 때 조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궁금한 내용을 다그친다든지, 부모가 해주고 싶은 충고나 조언을 성급하게 하는 것은 아이와의 대화를 다시 단절시킬 수 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다가가도록 하자. PPFK

